



특집 \_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서울서 개최... 16개국에서 59명 참가  
 화제 \_ 문 대통령 “직업연수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할 것”



# “더 진전되고 더 발전한 동포사회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만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한인 차세대 지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인 재외동포 1세대들은 참으로 어렵게 사시면서도, 심지어는 멕시코나 하와이나 쿠바의 사탕수수밭에서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시면서도 독립운동자금을 모아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조국은 1945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냉정한 장난 그리고 우리들의 못남 때문에 해방 조국은 분단됐고, 5년 만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1,000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토는 온통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조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외동포는 늘 조국을 도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동포들이 수많은 성금을 보내주셨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을 신식으로 바꿔주신 것도 재외동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외동포들과 조국에 계시는 국민의 마음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재작년 2017년에는 마침내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30~50클럽의 회원이 됐습니다. 30~50클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을 넘는 국가를 말합니다. 30~50클럽은 지구 상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7개 나라 중에 한국을 빼놓은 6개 나라는 한 세기 전부터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이미 경제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들은 식민지를 가지고 경제력을 키웠지만 우리는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착취당하고 빼앗겼지만 그러나 드디어 일어서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선조 그리고 선배들의 기적 같은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배들과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힘든 일을 해서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면서도 조국에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는 나라에서 당당히 한몫하시면서 조국 대한민국에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도 과거처럼 가난의 상징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이젠 희망을 가지고 세계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내걸고 앞으로 앞으로 치고 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훨씬 더 탄탄한 토대를 만들고 더 진전된 더 발전한 동포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동포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것입니다. **장**

(9월 3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초청 총리 공간 간담회 인사말)





04

06

20

- 02 권두언 “더 진전되고 더 발전한 동포사회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만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 04 특집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서울서 개최... 16개국에서 59명 참가
- 06 화제 문 대통령 “직업연수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할 것”
- 08 기획 “일제강점기 복미 전역 한인 독립운동의 숨결을 찾아다녔습니다”
- 10 글로벌 코리안 야당인 기독교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한인 목사 겸 의사 정치현 씨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서울대회 앞둔 정나오미 회장 위안부 문제 알리기 위해 13년째 활동 중인 재미동포 김현정 대표
- 12 한민족 공감 1 문 대통령, 태극서 한국전 참전용사 만나... ‘평화의 사도’ 메달 전달
- 13 한민족 공감 2 “대본 읽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 역할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해”
- 14 주목! 차세대 “모든 입양동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뿌듯해했으면 좋겠어요”
- 15 우리말 배워봅시다
- 16 동포소식 2019 ‘장보고 한상어워드’ 대상에 한창우 日 마루한 회장 외
- 19 동포 캘린더 월드옥타, 10월 14~17일 美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외
- 20 유공동포 프랑스에서 활약하며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함 알린 독립운동가 서영해
- 21 지구촌 통신원 싱가포르 한인 청년들을 위한 격려와 화합의 프로젝트 ‘청년 멘토링’
- 22 동포문학 2019년이 1919년에게 홍세훈 뉴질랜드
- 24 OKF 뉴스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황리 개최... 16개국 107명 한인 차세대 참가
- 25 기고문 한국어와 한글에 자긍심을 가지자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한글학회 회장
- 26 재단공지 2019년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업 상시모집 공고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서울서 개최... 16개국에서 59명 참가

## 거주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방안 논의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슌디 류·한국명 김신희)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후원하는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8월 27~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올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에서 59명의 현직 한인 의원을 비롯한 차세대 유망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입양동포로 프랑스 정계에 진출한 요하임 손 포르제(36) 하원의원, 역시 입양동포인 미국 매사추세츠 주 마리아 로빈슨(32) 하원의원, 미국 인디애나

주 역사상 아시아계 최초로 당선된 크리스 정(27) 주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한 알브레히트 가우터린(29) 독일 헤센 주 카르벤 시의원 등 차세대 정치인들의 참여로 대회의 비중이 높아졌다. 참가국도 11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됐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 뉴저지 주 한인 시의원의 대거 참여다. 무려 9명이 참가해 뉴저지 주에서 한인 동포들의 정계 진출이 두드러짐을 보여줬다.

이번 포럼은 한인들의 거주국 내 정치력 신장 방안을 강구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포사회가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무게를 뒀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이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도모하고, 친한(親韓) 정치인 및 차세대 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와 동포사회 역량결집, 모국과의 우호적 발전 관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이 한국에 와계시는 시간이 절묘하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및 임정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뉴스에서 보듯이 동북아 국제정치가 급변하는 상황에 있다. 며칠간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있는지 현장에서 잘 보시고 조국(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거주국 정책을 이끌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고 말했다.

### “한인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독려해야”

포럼 이틀째인 8월 28일 '동포사회의 거주국 내 정치 참여 확대와 차세대 정치인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익진 미국 조지아 주 하원의원은 "비즈니스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인이 해당 지역에 투자를 늘리면 한인 정치력을 키울 수 있다. 조지아 주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기아차가 이 지역에 투자하면서 2천5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한국의 경제력을 과시할 방법이 많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해외 한인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한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정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포사회 기여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마크 김 미국 버지니아 주 5선 하원의원(민주)은 "미국인 대부분은 한반도 역사에 대해 무지하다"며, "미국인에 대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알려야 한



1



2



다”고 말했다. 그는 “재미 한인사회를 보더라도 다양한 한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어떠한 조직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미 한인사회 내 관련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버지니아 주 첫 한국계 하원의원이 된 후 5선 연임에 성공할 정도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악화하는 한·일 관계 풀 수 있는 해법은 양국 정치인들의 냉철한 판단”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은 “수십 년간 이어진 분단으로 남북한의 경제·문화·정치적 차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의회 인턴 프로그램’과 탈북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한보이스 파이오니어(HanVoice Pioneer)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뉴질랜드에서 한인 최초로 의회에 입성한 멜리사 리 의원(4선)은 “정치라는 것이 스스로 관심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김치클럽’이란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 1.5~2세대는 한반도에 대해 잘 모른다. 뉴스를 듣고 피상적으로 아는 게 고작이다. 그런 점에서 인포메이션(정보)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일동포 3세인 카야마 시게키 나라 현 사쿠라이 시의원은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양국 정치인의 냉철한 판단을 요구했다. 나라 현 일한협회 친선회장이기도 한 그는 “재일한국인 3세인 내가 정치인이 된 것도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조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없다. 오랜 기간 양국관계 개선에 땀 흘린 분들을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의 싹을 다시 틔우고 싶다”고

소망했다.

조부모, 부모 모두 한국인인 그는 도쿄, 오사카 등에서 잡지사 편집인으로 일하다 자신의 고향인 사쿠라이 시의 쇠락을 막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번 포럼을 이끈 쉰디 류 회장은 워싱턴 주 북쪽의 소도시 쇼어라인에서 여성으로는 한인 최초의 시장을 지낸 데 이어, 주 하원 5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 상·하원을 통틀어 재미동포 여성으로는 최초의 5선이다. 차세대 정치력 확대 방안을 묻자 정치에 오래 몸담으면서 체험한 얘기를 들려준다. “If you are not at the table, you are on the menu’라는 말이 있다. 참여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말이다. (한인)1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데 신경 썼다고 하면, 2세는 으레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1세대 부모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지 마라’라며, 자녀의 정치 참여를 말린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정치 참여를 겁내지 말라는 것이다. 해보다가 적성에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된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참여해야 한다.” **[참]**

1~2. 8월 29일 판문점과 도라산 전방대를 방문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가자들.

3.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막식.

4.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쉰디 류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

5. 재일동포 3세 출신으로 일본 정치계에서 활동 중인 카야마 시게키 일본 나라 현 사쿠라이시 시의원.

# 문 대통령 “직업연수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할 것”

태국 동포 간담회… “양국 가까워지면 동포에게 더 많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한국과 태국은 서로 윈윈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양국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동포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국 공식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 방콕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피로 맺은 인연으로 양국은 가장 친밀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60년대 100여 명 남짓했던 태국 동포사회는 오늘날 2만 명에 이르는 공동체가 됐다”며, “처음 이 땅에 정착한 동포들은 식당을 운영하고 관광업에 종사하며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 건설업·체육·문화·언론 분야 등 활동 영역을 넓혀 태국 사회 전반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영석 태권도 감독님은 4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이끌어내며 한국인 최초로 태국왕 실훈장을 받았고, 태국 대표 관광상품을 만든 김환 대표님과 호텔 두짓타니 하송희 이사님 등 차세대 동포도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엇보다 동포 여러분께서 양국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한국·태국은 평화·번영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께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계속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의 조국은, 조국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동포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탬 것”이라며, “정부는 작년



1

부터 해외 사건·사고·재난에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있고, 올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을 제정해 더욱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한·태국 영사협력 협정 체결도 추진 중으로, 정부는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동포 교육도 중요하다”며, “차세대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직업연수와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동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주평통지회장 “남북정상회담 드라마 기억… 후반전 휘슬 기다린다”

이에 황주영 한인회장은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은 태국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 한인들에게 격려와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특히 근간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심 걱정도 되지만, 저희 한인들은 조국을 굳건한 믿음으로 더 강건하게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단단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결코 지지 않는 국가로



2



3

저희 태국에 있는 모든 동포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지회장의 환영사도 이어졌다. 이 지회장은 “지난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평화통일의 염원이 시동을 걸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감동의 드라마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했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의 휘슬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을 꼭 이룩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우리 태국 동포들은 모두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어로 ‘승리’라는 뜻을 지닌 ‘차이요’라는 말로 건배사를 선창하기도 했다.

### 아웅산 테러 희생자 추모...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추모비 참배

태국에 이어 미얀마를 국민방문한 문 대통령은 9월 3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4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북한의 ‘아웅산 폭탄 테러’로 희생된 순국사절들을 추모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찾았다. 이 추모비는 아웅산 폭탄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2014년 건립됐으며, 한국 대통령이 추모비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웅산 테러는 1983년 10월 9일 북한 공작조가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에 맞춰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폭탄을 터트린 사건이다. 이 테러로 서석준 당시 부총리, 이범석 당시 외무부 장관 등 17명이 사망하고 수행원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한국 대통령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 모두 방문한 것은 처음”

9월 1~3일 태국 공식 방문, 3~5일 미얀마 국민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은 5~6일 라오스 국민방문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4개월 만에 아세안 10개국, 인도를 포함한 ‘신(新)남방정책’ 대상 11개국 방문을 조기에 마무리하게 됐다. 한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4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모든 정상으로부터 협력 의지를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태국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 론칭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현지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참여 등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국가들로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확보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등의 성공을 끌어내고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장]**

1. 태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이 9월 2일 오후 방콕 시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태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3. 미얀마를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9월 4일 아웅산 국립묘지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에서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9월 3일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 시내 대통령궁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정상회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 “일제강점기 북미 전역 한인 독립운동의 숨결을 찾아다녔습니다”

독립운동 흔적 찾아 미 대륙 누빈 재미 방송인 김관호 씨

“미국 동서부와 멕시코, 쿠바 등 북미 182곳을 탐방하며 1900년대 초반과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 북미 전역 독립운동의 숨결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김관호(미국명 존 김) ‘YTV 아메리카’ 사장 겸 디렉터는 지난 5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뉴욕, 롱아일랜드, 덴버, 시카고, 네브래스카 주 등을 쉴 새 없이 누비고 다녔다.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은 멕시코시티와 유키탄 주 메리다 시 에네켄(애니깽)의 흔적을 찾았다. 1905년 조국을 잃고 멕시코 선인장 농

장으로 이주한 한인 1세대는 고국을 잊지 못하고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끼어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다. 쿠바에도 10곳이나 한인 1세대들이 일했던 농장이 남아있다. 미국 본토 118곳과 하와이 22곳, 멕시코와 쿠바를 모두 더한 독립운동 유적지는 총 18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2곳은 독립기념관에 수록된 독립운동유적지와 일치한다.

## “샌프란시스코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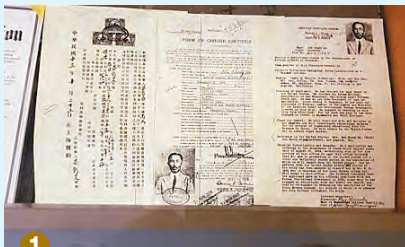
김 사장은 1998년부터 20여 년 동안 사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여정에 올랐다. 중심은 역시 샌프란시스코였다. 당시 ‘상항(桑港)’으로 불리던 샌프란시스코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서재필 선생과 재미 독립운동가들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었다. 또 한인 1세대는 1903년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갤럭호를 타고 일본,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해외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아직 남아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안창호 선생이 설립자로 등재된 상항 연합감리교회가 건재하다. 현재 주소는 ‘3030 주다 스트리트(Judah St), 샌프란시스코(SF), 캘리포니아(CA)’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에 제출된 안창호 선생의 당시 미국 입국 비자도 공개됐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잃은 도산은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오던 비자에 국적으로 중국을 기재했다. 당시 비자를 자세히 보면 ‘FORM OF CHINESE CERTIFICATE’(중국 국적 증명서)라고 쓰여 있고 안창호 선생은 한자로 ‘安昌浩’를 쓰지만, 비자에는 ‘安彰昊’로 사인을 했다.

1900년대 미 서부는 일본인의 늘어가는 토지 소유에 대한 반감으로 반일 정서가 높았던 시기였다. 이후 1919년 3·1운동 때까지 미 서부의 반일 감정은 더욱 격해졌다. 그해 3~4월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이 지역 신문들은 한국 르포 기사로 3·1운동을 1면에 크게 실기도 했다. 대일여론전의 포문을 연 기사였다. 3·1운동이 일어나던 그해 3월 9일, 대한민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상하이에서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 앞으로 3·1운동 소식을 알렸다. 안창호는 정한경과 서재필에게 타전하였다. 오후 7시



1



2





30분 중앙총회협의회를 옥스트리트 한인교회에 소집하니, 재류동포 남녀노유(남녀노소) 전체가 미친 듯 만세 부르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눈물을 뿌리는 자가 많더라.” 김관호 사장은 “돌러본 독립유적지 가운데 교회는 남아있는 곳이 있지만, 나머지 유적은 빈티어거나 일반주택, 민간건물 등으로 바뀌었다. 이미 100년을 훨씬 넘거나 이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지반상으로는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사료와 대조해 가까스로 현장을 담을 수 있었다. 촬영을 통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고 말했다.

### “중부 캘리포니아는 한인 이민 1세대들이 농장에서 노동하며 독립자금 모은 곳”

서재필 선생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부두노동자로 하역일을 했다. 이어 필라델피아에서 의대 공부를 했고, 의사가 되면서 한국 최초의 미 시민권자 1호가 됐다. 중부 캘리포니아 다뉴바지역 리들리,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등은 지금은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전원지역이다. 하지만, 1900년대와 1910년대에는 한인 이민 1세대들이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며 독립자금을 모은 곳으로 유명하다. 리들리의 김앤송(Kim & Song) 위탁판매소는 농산물 도매상이었다. 도산 선생이 리버사이드에 세운 최초의 한인 타운 파차파캠프와 비슷한 형태였다. 최근 김 사장이 찾아간 김앤송 위탁판매소는 주택으로 바뀌었다. 그곳 주택 앞마당에 무궁화가 피어있었다고 김 사장은 전했다. 집주인은 아마도 1910년대나 1920년대 초에 심어진 것 같다고 했다. 한국 이름으로 김용중과 송철이란 한인이 이곳에서 위탁판매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냈다는 사료가 일부 남아있다. 김 사장은 “무궁화를 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 약 100년 전 이곳에 독립을 위해 애쓴 미주 한인들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다뉴바 공동묘지에서는 한인들의 묘비가 70기 넘게 발견됐다. 영문으로 KIM을 쓴 사람도 있고, K.H.SHIN(1873~1941)은 ‘BORN IN KOREA’(한국에서 태어났고), ‘홍사단우’라고 비교적 또렷하게 한글로 표기돼 있었다. 1910년대 운영됐던 북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북쪽에 있던 윌로즈 비행학교 자리도 탐방 대상이 됐다. 당시 이 비행장은 조국

을 잃었지만, 우리 힘으로 전투비행사를 양성해 일제에 맞서려던 당시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다.

### “미 동부지역 독립운동,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 실려”

동부에서도 독립운동의 숨결은 느껴졌다. 3·1 운동의 모태가 된 2·8 동경 독립선언에 영향을 준 단체는 뉴욕 신한회였다. 1917년 10월 뉴욕 한인 김헌식이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에게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대표자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는 기사가 당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 실렸다. 당시 신한회 12개항 독립청원서에는 “탐욕 때문에 약한 이웃 나라를 파멸시키는 제국주의는 연합국의 승리로 파괴되었다. 미국 정부와 연합국은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 대원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

1.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할 때 사용한 비자. 국적은 중국으로 돼 있다.
2. 1면 전체를 할애해 한국에서의 독립봉기를 르포 기사 형태로 작성한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1919년 4월 6일 자 기사. 사진은 기사의 필자인 V.S.매클래치 ‘새크라멘토 비(Bee)’ 발행인이다.(출처: USC Korean American Digital Archive)
3.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부 다뉴바 지역 한인들이 100년 전 고국의 3·1운동과 같은 만세운동을 벌인 것을 기록한 기념비.
4. 10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다뉴바 지역 김앤송 농산물 위탁판매소 자리에 피어있는 무궁화.
5. 하와이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 기념비 앞에 선 김관호 사장.
6. 한인 1세대들이 1904년 초반 해외에 최초로 세운 것으로 알려진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 건물.
7.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0년대 중반 무렵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상항) 연합감리교회.



볼리비아 야당인 기독교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한인 목사 겸 의사 정치현 씨



## 남미 볼리비아 대선에 한인 동포 도전... “한국 기적을 이곳에도”

10월 20일 치러지는 남미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한인 목사 겸 의사인 정치현(49) 씨가 야당인 기독교민주당(PDC)의 후보로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월 28일 정 씨와 볼리비아 일간지 라라손에 따르면 PDC는 내부 회의를 거쳐 정 씨를 하이메 파스 사모라 전 대통령을 대체할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했다. 해외 대선에 한국계 후보가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는 80세 고령의 사모라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후보에서 사퇴한 후 7월부터 PDC 대체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당 내부 논의 과정의 지연으로 후보 확정이 늦어졌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씨는 선교사였던 아버지 정은실 목사를 따라 12살 때인 1982년 볼리비아로 건너간 후 귀화해 외과 의사와 목사로 활동했다. 아버지는 1990년 볼리비아 기독교대학교(UCEBOL)를 설립했다. 정 씨는 “내가 자라고 공부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정하게 됐다”며, “볼리비아가 공산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새마을운동 정신을 접목하면 볼리비아 경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볼리비아에도 한국의 기적이 나타나길 바란다”며, 볼리비아를 5년 이내에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타크루스에서 사목하는 정 씨는 가정을 중시하고 성경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기독교적인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볼리비아 대선엔 예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4선 도전장을 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모랄레스 대통령이 35%, 야당 후보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이 27%로 1, 2위를 달리고 있다. 정 씨는 “승산을 떠나 볼리비아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부동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데다 내가 유일하게 새로운 이미지의 후보”라며 남은 선거기간 선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앞으로 나아갈 방안 짜내는 프로그램으로 행사 준비”

2006년 발족한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는 세계에 흩어져 활동하는 국제결혼 한인 여성의 모임이다. 현재 미국 17개 지부를 포함해 세계 16개국에 37개 지부를 두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한인 여성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 조직한 이 단체는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결속했다. 또한, 구성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를 통해 고국의 세계화와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왔다.

15회째를 맞는 올해는 10월 9~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100여 명의 회원

이 참가한 가운데 '기억하기-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아칸소 주에서 행사 준비차 방한한 정나오미(한국명 정부남 · 63) World-KIMWA 회장은 8월 23일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사는 국제결혼 한 한인 여성들의 규모로 봤을 때 우리 단체는 지금쯤 군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여객선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대회에서는 왜 그렇게 머물렀는지 반성하고 돌아본 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방안을 짜내는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출신으로 미군인 남편을 만나 1977년 결혼한 뒤 이듬해 미국에 이민했다. 아칸소 주립대에서 보건학과 커뮤니티 건강을 전공했고 아칸소 종합메디컬센터에서 약학도 배웠다. 멤피스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2007년 아칸소 주 최초의 동양인 안수 목사가 됐다. 제6대 아칸소 한인회장을 지낸 그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고향인 아칸소 주 리틀록 시에서 한국전 기념광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경기도 의왕시 홍보대사로 2002년부터 활동하는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World-KIMWA 제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서울대회 앞둔  
정나오미 회장

##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들이 계속 헛소리 하니깐 나설 수 밖에 없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어요. 전쟁 당시 끔찍한 국가 주도의 성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LA에서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이하 '위안부 행동' · CARE)을 주도하는 김현정(50) 대표의 마음은 바쁘다. 할머니들이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 마이크 혼다 전 미 하원 의원이 주도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13년째 미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참가차 방한한 김 대표는 8월 28일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들이 계속 헛소리를 하니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그냥 있으면 아베의 주장이 그대로 역사로 굳어질 것이기 때문에 싸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영원한 증언'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녹화해 영상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다. 궁금할 수 있는 질문 여러 개를 미리 할머니들에게 던지고, 답을 하게 한 뒤 비디오로 녹화해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이다. 훗날 방문객이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답을 재생해 주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에게 나눠줄 '교사 참고용 자료집'도 제작하고 있다. '위안부 행동'이 제작해 배포한 미국 교사들을 위한 수업지도안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의 후속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자료집은 내년 초 발간해 교사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10월 중순에는 LA에서 '일본군 위안부 영화제'도 연다.

스무 살 때 미국 LA에 가족 이민해 UCLA 민족음악과를 졸업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후 통역사가 됐다. 그는 LA를 방문한 이용수 할머니의 통역을 맡으면서 “아, 내가 이 할머니들의 증언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위안부 문제 알리기 위해  
13년째 활동 중인  
재미동포 김현정 대표



# 문 대통령, 태국서 한국전 참전용사 만나... '평화의 사도' 메달 전달

## 한국전쟁에 태국군 6,326명 참전... '작은 호랑이' 별칭 얻기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월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뿌리웃 짬오차 태국 총리 내외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고 있다.

**태**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9월 2일 태국 총리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접견에는 반딧마리아리순 태국 한국전참전협회 회장을 비롯해 6명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후손 및 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태국군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며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이 메달은 1975년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수여하기 시작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5명의 태국군을 추모하고, 태국군 유해를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하면서, "태국군의 한국전 참전이 양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디딤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뿌리웃 짬오차 태국 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태국 총리 내외도 자리를 함께했다.

태국은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한국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미국, 캐

나다, 호주와 함께 육·해·공군 병력을 모두 보낸 참전국이다. 한국전쟁 기간 태국군은 6,326명이 참전해 136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했으며 5명이 실종됐다.

한국전 참전 전투단으로 창설된 태국 보병 제2사단 제21연대는 뿌리웃 짬오차 태국 총리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에는 한국전 당시 폭참고지(Pork Chop Hill) 전투에서 활약한 참전용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활약한 아픈 우타까눅 당시 육군 대령, 수완 찐다 당시 육군대령, 우돔 카우끄라짱 당시 육군대위, 뿌리웃 룯신 당시 육군중령 등이 참석자에 이름을 올렸다.

폭참고지 전투는 태국군이 중공군을 격퇴한 전투로, 당시 태국군은 25명만 전사했지만 중공군은 무려 400여 명이 사살되는 등 큰 승리를 거뒀다. 이런 승전 덕에 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작은 호랑이(Little Tiger)'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참석자 중 타나삭 쯔라짜릿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대를 이은 참전용사의 후손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

# “대본 읽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 역할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해”

## 캐나다 인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주역들 모국 찾아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시트콤 드라마다. 극 중 아빠 김씨 역을 맡은 한인 배우 폴 선행 리와 엄마 역의 진 윤, 딸 재닛 역의 앤드리아 방과 총괄제작자 이반 피산은 ‘서울드라마어워즈 2019’ 해외 초청작으로 초대받아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8월 29일 마포구 상암동 영상자료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네 편의점’이 자신들의 커리어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일제히 감격에 겨워했다.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이민 가족의 삶을 웃음 가득하게 그려내고 있다.

최근 북미 지역에선 넷플릭스 오리지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나 영화 ‘서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등 아시아계를 주인공으로 한 대중매체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김씨네 편의점’ 역시 ‘아시아 파워’를 입증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2016년 시즌1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시즌4 공개를 앞두고 있다.

‘김씨네 편의점’은 동명 연극이 원작이다. 어렸을 때 캐나다에 이민한 최인섭 씨가 실제 캐나다 내 한인사회에서 겪었던 경험을 연극으로 옮겼고, 그것이 현지 드라마로 재탄생했다. 실제 이민자 시선으로 그려진 작품인 만큼, ‘김씨네 편의점’에서 아시아 배우들은 상투적 아시아형 캐릭터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할리우드나 미국 드라마계에서 아시아 인종은 수확에 뛰어난 ‘뚝뚝이’ 이거나 중국계 조직폭력배 등으로 재현됐다. 진 윤은 “배우로 살아가면서 실제 가족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역할은 2~3개밖에 없었다”고 털어냈고, 폴 선행 리 또한 “북미권에선 주인공을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완전한 캐나다인이 되기 위해 한인 동포 정체성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폴 선행 리는 ‘김씨네 편의점’을 “내 인생 최대 축복”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그는 “대본을 읽는 순간 평생 내



캐나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 출연진. 왼쪽부터 폴 선행 리, 진 윤, 앤드리아 방, 이반 피산. (사진·서울드라마어워즈 제공)

가족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가슴으로 느꼈다. 감동이 깊이 느껴졌다”며 “직감적으로 이 역할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진 윤은 “드라마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됐다. 어릴 적 인종차별적인 놀림을 받을 때도 중국인·일본인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자랐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 드라마는) 날 발견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총괄제작자 이반 피산은 제작 배경에 대해 “캐나다는 ‘이민자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이민자가 많고, 이 시리즈가 촬영된 토론토는 거주자 50% 이상이 이민자”라면서 “이런 점들이 ‘김씨네 편의점’에 풍부한 자원과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폴 선행 리는 “드라마 속 김씨네 가족은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결국 우리 모두와 똑같은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정]

# “모든 입양동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뿌듯해했으면 좋겠어요”

## 입양동포 출신 美 스타트업 대표 브라이언 코니어 씨

“**친** 부모를 만난 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졌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입양동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기업 킵립(GIBLIB) 대표인 브라이언 코니어(35) 씨는 자신이 입양동포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전혀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지역 입양동포 단체 ‘커넥트 에이 키드’(Connect-A-Kid)를 창립한 것도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 입양동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뿌듯하게 생각하면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진행된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그는 “다른 미국 친구들과처럼 평범한 삶을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입양동포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양부모 밑에서 한인 입양동포 출신 누나 2명과 함께 살아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경영학과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친 뒤 4차원 수술 영상을 상용화하는 킵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성인이 된 이후 친부모 찾기를 시작했고 친부모를 만난 뒤 얻은 깨달음으로 커넥트 에이 키드를 만들었다. 그는 “친부모를 만난 뒤 내 출신 배경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입양동포들이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친부모를 만난 뒤에도 기존의 일상과 똑같이 생활하려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DC 등 미국 내 주요 도시로 지부를 확장한 커넥트 에이 키드는 한국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식으로 입양동포 간 소통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는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입양동포를 위해 다양한 한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브라이언 코니어 씨.

인 동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셰프에게 한국 요리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한국문화원의 도움을 받아 입양동포에게 한국 역사를 교육하기도 한다.

코니어 씨는 “처음에는 입양동포들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양부모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양부모들은 내가 이 아이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할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입양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부정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상의한다”고 말했다.

중장년이 된 입양동포들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코니어 씨는 다른 입양동포들도 한국 문화를 즐기며 입양동포라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즐겁게 극복하길 바랐다. “개인적인 상황과 배경이 어떻든 그 자체보다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죠. 미국 내 작은 소도시에서 사는 한인 입양동포도 이런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

# 바른 말 고운 말

## “그간 격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소식이 끊겼다가 다시 만날 때 ‘그간 격조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또 ‘그간 적조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표현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먼저 ‘격조(隔阻)’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자의 ‘사이 뜰 격(隔)’자와 ‘막힐 조(阻)’자가 합해진 말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통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어서 오랫동안 서로 소식이 막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그리 오래지 않은 동안에 아주 바뀌어서 딴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리켜 말하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도 바로 이 ‘사이 뜰 격(隔)’자를 써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조(積阻)’라는 말은 한자의 ‘쌓을 적(積)’자와 ‘막힐 조(阻)’자를 쓰는데, 이것 역시 오랫동안 서로 소식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할 때, ‘그간 격조했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그간 적조했습니다’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되기 때문에 어느 표현을 쓰셔도 맞습니다.

## 냉면과 국수사리

흔히 냉면집에 가서 물냉면이나 비빔냉면을 시켜 먹으면서 좀 더 먹고 싶을 때, 냉면 한 그릇을 더 시키지 않고 면만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냉면 사리를 갖다 달라’고 말하는데, 이 ‘사리’라는 말을 일본어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사리’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사리’는 원래 ‘사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리다’란 말은 ‘국수나 새끼같이 긴 물건을 헝클어지지 않게 빙빙 돌려서 동그랗게 포개어 감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살살 피하며 몸을 아낄 때 ‘몸을 사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수나 새끼 또는 실 감은 것을 흠어지지 않도록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를 뜻하는 말이 바로 ‘사리’입니다. 그래서 ‘국수 사리’라든가 ‘냉면 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라는 말은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그 뭉치를 세는 단위로도 쓰이기 때문에 ‘국수 한 사리’ 또는 ‘냉면 한 사리’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0			22		
23			24		

#### ▶ 오른쪽 방향 열쇠

1.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
4. 조선 시대 유학자 이율곡의 어머니
7. 날이 새로워짐. ‘○○우일신’
8. 물이나 약품을 안개와 같이 뿜어내는 기구. 농약 칠 때 사용하죠
9. 내일(來日)을 이렇게도 부르죠
12.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족벌들이 통치하는 정치를 가리켜 ‘○○통치’라고 부르죠
14. 명절날 삼삼오오 모여 발로 제기라는 놀이기구를 차며 노는 놀이
15. 타동사로 일정한 기준에서 한편으로 쏠리는 것. 귀를 ‘○○이다’
17. 소가 끄는 수레
21. 같은 학교 출신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나 모임
23. 은행 열매가 달리는 나무
24. 원 모양의 둥근 형상. ‘○그라○’

#### ▶ 아래쪽 방향 열쇠

1.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인종으로 구성된 민족
2. 임금과 신하
3. 꽃을 심어 가꾸는 분(盆)
4. 매우 뛰어난 기술이나 재주. ‘그는 ○○에 가까운 재주를 가졌어’
5. 관직에 명함. 직무를 맡김
6. 일이 벌어진 그 날 하루에 벌어지는 일. 시험 날 ‘○○치기’로 공부하다
10. 물을 담는 통
11. 초(楚)나라와 한(漢)나라가 싸우는 놀이. 장군 명군
13. 타동사로 어떤 자리에 있음이 마땅치 않아 다른 데로 옮기다. ‘쓰레기를 ○○○’
14. 철광으로 철을 만드는 곳
15. 한글 자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16.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18. 미국의 화폐단위
19. 물고기나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21.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22. 일정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임

#### ▶ 2019년 8월호 정답

경	상	북	도		부	재	중
기		덕	지	덕	지		얼
도	시	락	평	사			중
	시	진	선	미	얼	얼	
	콜	정	술	음			
콜	콜	서	기	관	과		
레		대	어	도	자	기	
라		동	음	이	의		중
균	역	법		사	팔	뜨	기

## 2019 '장보고 한상어워드' 대상에 한창우 日 마루한 회장

마루한, 지난해 매출 약 18조 원, 종업원 숫자 2만여 명 달해



재일동포 기업인 한창우 마루한 회장.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은 8월 30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2019 장보고 한상어워드' 대상에 한창우(88) 일본 마루한그룹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1947년 일본에 건너가 업계 1위의 파친코·슬롯 영업점 317개를 운영하는 (주)마루한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과 호텔, 부동산, 클린 서비스, 외식업, 레저,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계열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5천726억 엔(한화 17조8천700억 원)을 올렸고, 종업원 숫자만 1만9천600여 명에 이른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청룡장(1987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1995년)을,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 서보장(1999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최고훈장 대십자상(2008년)을 각각 받았다.

시상식은 10월 24일 여수에서 가질 예정이다. 부상으로 2박 3일간 완도 투어와 더불어 내년 재개관하는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에 수상자의 성공스토리를 1년간 전시한다. 장보고한상어워드는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한인사회 발전에 앞장선 한상(韓商)에게 주는 상이다. 2016년부터 흥명기 미국 M&L흥재단 이사장,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등 지난해까지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 캘리포니아 주의회 '한글날' 제정...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

소수민족 언어로는 美서 처음... "한인 2세·3세에 정체성 심어줘"



한글날 제정 지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국어강좌 수강생들(사진·LA한국문화원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한글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9월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새런 쿼크-실바 의원실 박동우 보좌관에 따르면 주의회 상원은 9월 9일 늦은 밤에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Hangul Day)로 제정하는 결의안(ACR 109)을 4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주지사 서명이 필요 없어 올해부터 10월 9일이 한글날로 지정된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어 진흥단체들이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보좌관은 "소수민족 언어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글 기념일이 생긴 것"이라며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글은 미국 안전보장국에서 시민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배우기를 독려하는 5개 언어 중 하나이다. 또한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하나로서, 현재 미국에서 5만 명 이상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박 보좌관은 "캘리포니아 주 한글날 제정은 한인 2세·3세들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캘리포니아 주 한글 보급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CR 109는 쿼크-실바 의원과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 미겔 산티아고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한인단체들은 한국어가 미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되고, K팝·K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에 힘입어 한글 교육이 활발해지자, 한글날을 주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LA한국문화원은 한국어강좌 여름학기 개강을 맞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날 지정 지지 서명운동을 했다.



## 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청주서 열려… 30개국 700여 명 참가

재미동포 영 김 전 의원, “내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승리할 것”



기조강연 하는 영 김 전 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세계 한민족 여성 700여 명이 모여 성 평등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축제가 8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막을 올렸다. ‘20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는 이날 오전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사흘 동안 이어지는 네트워크의 장을 열었다. 올해로 19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해외에서 29개국 210명, 국내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민족 여성 리더들이다. ‘세계 한인 여성, 평등한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 아래 양성이 평등한 미래 100년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의의 장을 펼쳤다.

개회식에 이어 영 김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역사의 주체 : 한인 여성들의 미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그는 “미국에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제20회 KOWIN 대회를 워싱턴DC에서 열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도 아이 네 명을 기르며 정치를 했듯이 한인 여성들은 1인 4억, 5억을 하며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할과 영향을 좀 더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차세대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날 때 겨우 한마디 하는 데 머물지 말고, 꾸준히 시간을 만들어서 조언하고 멘토링 해야 한다”며 “쫓아오는 차세대들이 용기를 얻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호주 대형 할인점, 한인 동포 항의에 욱일기 티셔츠 판매 중단

빅더블유 “마음 상하게 할 의도 없었다… 욱일기 디자인 안 쓸 것”



호주 대형 할인매장 빅더블유(Big W)에서 판매된 욱일기 문양의 티셔츠. (양재현 씨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캡처)

호주 전역에 182개 점포를 가진 대형 할인점 ‘빅더블유’(Big W)가 한인 동포의 엄중한 항의를 받고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문양 티셔츠 판매를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호주 동포 양재현(41) 씨는 9월 1일 시드니 탑라이드 쇼핑센터에 있는 빅더블유 매장을 방문했다가, 욱일기 디자인이 선명한 티셔츠를 6 호주 달러(약 5천 원)에 판매하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곧장 고객센터를 찾아가 욱일기는 독일 나치당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항의하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빅더블유 본사는 물론 호주 언론사인 시드니모닝헤럴드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욱일기 티셔츠 판매 관련 정식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빅더블유 본사는 9월 3일 양 씨에게 보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도시를 상징하는 티셔츠 시리즈 중 하나일 뿐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호주 전체 매장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도 욱일기 이미지가 들어간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욱일기 티셔츠 판매 중단을 끌어낸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에 알린 양 씨에게는 “고생했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등 동포들의 격려와 지지가 쇄도하고 있다. 양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호주 사람들이 침략자 일본을 상징하는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 자녀가 기억하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나의 아버지 최재형' 출간

딸 최올가 · 아들 최발렌틴 생전 육필원고 번역해 담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자녀가 전한 아버지의 생애가 책으로 나왔다.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1860~1920) 선생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담은 육필원고가 한글로 번역돼 출간됐다.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최재형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자세히 엿볼 수 있다. 도서출판 상상이 펴낸 '나의 아버지 최재형'은 최재형 선생의 딸 최올가와 아들 최발렌틴이 러시아어로 직접 쓴 원고를 러시아 전문가인 정헌 전 모스크바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최올가는 아버지를 점령자인 일본과 싸웠던 인물로 기억한다. 부친이 독립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의거를 배후에서 지원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안중근 의사가 집 창고 벽에 세 명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들을 향해 총을 쏘는 연습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결국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으로 넘어가 일본군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고 원고에 적었다. 최올가는 최재형 선생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1920년 4월 4일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뒤 일본 군경에 의한 죽음을 예감한 듯 가족이 한데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기록했다. 최재형 선생의 딸은 다음 날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았을 무렵 아버지가 방 덧문을 열었고, 5분여 후 총을 든 일본군이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는 팔이 뒤로 묶여 잡혀가는 모습이었다. 최올가와 최발렌틴 모두 중앙아시아 이주 뒤 이유 없이 체포돼 감옥살이했다. 이들은 출소 뒤 다양한 사회, 저술 활동을 하다 2001년과 1995년 각각 세상을 떠났다.

## 피로 맺은 한·콜롬비아 우정... 참전용사와 한인들 함께 달렸다

보고타서 '한·콜롬비아 우호의 날' ... 참전용사·후손 등 800여 명 참가



9월 14일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우호의 날' 행사.(사진·콜롬비아한인회 제공)

중남미 유일의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에서 한인들과 참전용사, 그리고 참전용사 후손들이 함께한 특별한 체육대회가 열렸다. 콜롬비아한인회(회장 박원규)는 9월 14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기마학교 연병장에서 '한·콜롬비아 우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엔 콜롬비아 동포들과 현지 상사 주재원들은 물론 콜롬비아 참전용사 50명, 참전용사 후손 410명, 콜롬비아 K팝 동호회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네 팀으로 나뉘어 6·25 전쟁 관련 퀴즈를 함께 풀고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풍선 돌리기, 축구 등을 함께 했다. 행사 시작 전에는 한인과 참전용사들이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기도 했다. 현지 한국학교 학생들의 아리랑과 K팝 공연도 마련됐으며 김밥과 콜롬비아식 통돼지 구이로 함께 식사도 했다. 콜롬비아는 6·25 당시 중남미에서는 유일하게 5,300여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이들 가운데 사상자는 600여 명에 달한다. 생존 참전용사들은 참전용사회를 결성해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갔고, 후손들도 지난 2011년 참전 16개국 중 처음으로 참전용사 후손회를 만들어 아버지, 할아버지가 피로 맺은 한국과의 우정을 지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콜롬비아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은'을 이어가 2016년 보고타에 재활병원인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를 건립했고, 2017년엔 한인회가 제공한 부지에 참전용사 우호회관을 세웠다. 



**10월 19~20일 프랑스 파리서 '유럽 한인 차세대대회'**

프랑스 한인회 산하 차세대협회(회장 심소정)는 10월 19~20일 파리 펜타 호텔에서 '유럽 한인 차세대대회'를 개최한다. 유럽 거주 45세 미만의 동포 1,5세와 2세 70여 명이 모여 '한류와 그 이후'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유학생보다는 현지에서 나고 자라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차세대를 중심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우즈베크에서 '한민족 큰잔치 콘서트'**

추석을 앞두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을 위로하는 노래잔치 한마당이 열렸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은 8월 31일 수도 타슈켄트의 '한국예술의 집'에서 '2019 한민족 큰잔치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고려인 공훈 가수 신갈리나 씨, 고려인들로 구성된 '시온고 합창단', 고려인 자녀들로 이뤄진 그룹 'ANYONG KIDS' (안녕키즈) 등이 무대에 올랐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937년 연해주로부터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과 후손 18만여 명이 살고 있다.

**'윤동주 미주문학상' 대상에 조옥동 시인**

윤동주미주문학상위원회(위원장 최연홍)는 '제2회 윤동주 미주문학상' 대상에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조옥동(사진) 시인을 선정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대상 수상작은 '서시'다. 위원회는 "조 시인이 LA에서 10여 년간 미주 윤동주기념사업회 등을 이끌어오면서 그의 문학 사상을 널리 알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 시인은 1997년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예작품 시 부문에 입상한 뒤 '현대시조' '한국수필'로 등단했다. 재미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월드옥타, 10월 14~17일 미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하용화)는 10월 14~17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에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국의 경제 발전과 무역 증진,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다. 대회에는 73개국 144개 지회 회원 700여 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국내 중소기업 70여 개 대표단, 해외 바이어 300여 명 등 모두 1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LA 한인회, 중국 동포 초청해 한가위 큰잔치 개최**

LA 한인회(회장 로라 진)는 9월 12일 추석을 맞아 중국 동포 70여 명을 LA 시내 한인회관에 초청해 한가위 큰잔치를 열었다. LA 한인회는 "보통 설날에만 저소득층 노인 500여 명을 모시고 떡국을 끓여 대접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추석을 맞아 중국 동포들을 초청하게 됐다"면서 "지난 4월 한인회가 중국 연지(延吉)를 방문해 월드옥타 연지지회와 청소년 교류 활성화 MOU를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한인교회 3,514개... 캘리포니아 주 30% 차지**

미국 내 한인교회가 2017년 기준으로 3,514개로 파악됐다고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이 9월 7일 밝혔다. 이 중 30%에 가까운 1,008개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고 KCMUSA는 덧붙였다. 이어 뉴욕지역 280개, 조지아 194개, 텍사스 189개, 일리노이 172개, 워싱턴 166개, 뉴저지 157개, 버지니아 154개, 메릴랜드 129개, 플로리다 111개 등 순으로 많았다. 한인교회 1개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네소타 주로 1,168명이다.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t.or.kr)로 보내주세요

# 프랑스에서 활약하며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함 알린 독립운동가 서영해

## 불어 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 조국 사랑과 독립운동 열정 묻어나

“나”는 극동에 위치한 어떤 나라의 전설적 역사를 간략히 개괄해보려 한다. 이 나라의 역사는 매우 독창적이며 무척이나 흥미롭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영해(徐嶺海·1956년 실종) 선생이 1929년 불어로 쓴 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프랑스인들이 매우 생경하게 여겼을 아시아 동쪽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 1902년 부산에서 태어난 서영해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한 뒤 1920년 프랑스로 갔다. 불어를 전혀 몰랐던 그는 파리 근교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6년 뒤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이어 1929년 고려통신사를 설립하고 첫 사업으로 소설을 발간했다. 반응은 매우 좋았다. 1년 만에 5쇄를 찍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헌정됐다.

출판사 '역사공간'은 유럽에 한국의 현실을 알린 '어느 한국인의 삶'(불어판)을 출간한 지 90년 만인 올해 초 처음으로 우리 말로 옮겨 단행본으로 펴냈다. 서영해는 소설에서 가상 인물인 한국의 혁명가 '박선초'를 주인공으로 설정해 한국 역사와 풍습을 서술하고, 당시 국제정세와 독립운동을 다뤘다. 마지막에는 1919년 3월 1일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를 불어로 번역해 실었다. 소설 중 일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지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권을 빼앗긴 한국에 관심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세상



서영해 선생의 젊은 시절 모습. (재불 한국학자 이장규 씨 제공)



올해 4월 11일 부산 남구 부산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서영해, 파리의 꼬레앙, 유럽을 깨우다' 개막행사에 참석한 서영해 선생의 두 손녀 스테파니(왼쪽)와 수지 씨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특별전을 보기 위해 할아버지 나라를 찾았다.

에서 정의란 말은 더 이상 없다. 정의란 마땅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비추던 빛이 갑자기 꺼지고 말았다”며, “모름지기 문명국가들은 일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 문

명국가들은 약소민족을 억압하는 일본을 규탄해야 한다”고 적었다.

소설을 번역한 김성혜 씨는 “프랑스인 독자를 상대로 쓴 이 책은 문장이나 어휘, 표현 모든 것이 경탄을 자아낼 만큼 완벽했다. 그러나 더 가슴을 뭉클하게 한 것은 책에서 끝없이 묻어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장석흥 국민대 교수는 해설에서 “서영해는 1947년 환국까지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등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펼쳤으나, 정작 그의 삶은 오랫동안 신비에 싸인 채 가려져 있었다”며, “그는 독립운동의 불모지와 같던 유럽에서 20여 년간 독립운동을 한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일본을 통해 한국을 왜곡되게 인식하던 프랑스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며 “자유·평화 사상에 바탕을 둔 그의 독립운동은 외롭고 힘든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자취는 한국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차원에서 기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해 선생은 임시정부의 초대 주불대표를 지내고 1947년 귀국해 해방정국의 극도의 혼란을 겪던 정치판과 거리를 둔 채 문화 분야에 힘을 쏟다가 1956년 상하이 인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행방 불명됐다. 유럽에서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한정**

# 싱가포르 한인 청년들을 위한 격려와 화합의 프로젝트 ‘청년 멘토링’

“힘내라! 한인 청년, 우리가 도와줄게!”

**최**근 들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한인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동포 중 1/3이 학생과 청년들이다. 학업, 취업 혹은 인턴 등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소외감, 열대지방의 무더운 날씨, 외식문화와 건강, 다민족 동료들과의 직장 내 갈등, 공동 주거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높은 물가에 따른 생활비 고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등이다. ‘싱가포르 한인회’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한인 여성회’, ‘싱가포르 생명의 전화’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싱가포르 한인회’를 중심으로 ‘청년 멘토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해도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의 한인 청년과 학생들에게 현지생활의 정착, 취업정보 공유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한인회를 중심으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과 장년이 함께 참여하는 한인회의 선순환 구조가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덕창 싱가포르 한인회장이 밝힌 목적과 취지다. 저녁이 있는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 한인 청년들은 더욱 다양한



한인 청년을 위한 ‘싱가포르 한인회’ 멘토링 프로그램의 하나인 ‘선배들의 직업과 직장 경험 나누기’.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선배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고민보다는 선배들의 조언과 전문가들의 강연 등으로 미래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또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외로움 혹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해외에 진출한 선배들을 만나 값진 조언과 노하우를 얻을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음 모임이 기다려진다는 한인 청년 K 씨는 “한인회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선배들의 강의로 들으면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라며 미소를 짓는다.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 한인 여성회’의 협찬으로 ‘김치 담그기와 간편식사 만들기’를 하였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자칫 잃을 수 있는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었다. “청년들에

게 필요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려면 ‘멘토와 멘티’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한인회 자체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올해 진행한 여러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한인 단체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멘토링’ 황에스터 단장은 참여단체의 운영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청년 멘토링’ 프로젝트는 첫 출발은 한인 청년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한인 단체들의 ‘화합의 장’을 끌어냈음은 물론 한인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한인 커뮤니티로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세대 한인 청년들에게 좋은 모범이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창**

채혜미 ‘재외동포의 창’ 싱가포르 통신원 아트 저널리스트

## 2019년이 1919년에게

홍세흔(뉴질랜드)

2019년을 살고 있는 나는, 2001년 12월생으로 뉴질랜드 나이로는 17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19살로 백세시대를 꿈꾸는 소녀이다. 1919년에 살았던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이었고, 다음 해 1920년 9월에 19살의 나이로 순국한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와서 학교에 다니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끔은 힘들어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밤새워 놀기도 하며, 나의 발전과 나의 재미와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평범한 소녀이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서울로 유학해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가끔은 뜨개질을 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니다'를 '명태 이름으로 빙니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기도 하는, 평범하면서도 튼튼하고 영특한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로 인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조사하게 되고 글로벌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하나가 되는 세계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소녀이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삼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탑골공원에 나가 만세를 부르고, 전국적인 휴교령이 내려져 돌아가게 된 고향에서는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주면서 연설을 하고 만세운동에 앞장서는 등 직접 실천하는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어떤 대학에 진학하여 어떤 공부를 할까를 고민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나의 미래가 밝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소녀이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 중에 부모가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험을 하고 유관순 열사 자신은 체포되어 공주 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구형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옮겨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옥중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1919년 삼일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전시회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독립 만세운동 시연소식을 접하면서 삼일운동에 관심이 있던 중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영화 '항거 : 유관순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가슴 먹먹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유관순의 삶에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여느 10대와 같이 삶에 대해 고민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살았기에 어떤 하루는 "만세운동을 한 것을 후회한다"며, "정당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다"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연약한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열사와 같이 가끔은 고민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평범한 10대로 살아가며 열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눈물도 흘리며, 내 탓 남 탓하며 한숨도 자주 쉬는 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 소녀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동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신 나설 수 있는 용감한 성격으로, 조선인이 조선인을 핍박하는 억울하고 비겁한 상황에서 “조선인은 일본말을 할 줄 알아도 조선말을 쓴다”며 그릇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곧은 소녀이기도 하였다.

2019년의 나는, 친구를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내게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 피해가 오지 않는 일에 대해 열사처럼 나설 수 있을까 반성하게 된 소녀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마음만은 자유로움을 간직하고 하나뿐인 목숨을 자신이 바라는 일에 맘껏 쓰겠다고 생각하며, 특별 사면으로 형을 반으로 줄여준 일제에 감사하라는 말에도, 일본말로 빌면 고문을 멈추겠다는 말에도, 끝까지 자신은 “죄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소녀이기도 하였다.

2019년의 나는, 육체는 자유로우나 때때로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며, 모범적인 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그려놓은 경계선을 두려움 때문에 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꺼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고쳐 보겠다고 다짐하게 된 소녀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주위에서 미련하게 ‘왜 그렇게까지 하나?’는 물음에 “그럼 누가 합니까?”라고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나라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기도 하였다.

2019년의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이따금 투정부리고 원망하는 모습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먼저 생각해보겠다고 결심하게 된 소녀다.

2019년이 100년 전의 1919년에게,  
 나라를 잃고 억압받으며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게,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열사에게, 2019년이 1919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때의 열사처럼 할 자신이 없기에, 그때의 열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기에, 그때의 열사도 나와 같은 소녀였기에, 그 소녀가 지키려고 한 나라가 발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기에, 2019년의 소녀는 1919년의 그때 그 소녀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많이 감사하다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이 마음이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마음에 가닿기를 염원하며, 가만히 진심을 전해본다. **정**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황리 개최... 16개국 107명 한인 차세대 참가 이 총리 “이제 여러분은 조국 대한민국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



1~2. 제22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  
3.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차 방한한 17개국의 동포 유망주 106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22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6개국에서 107 명의 한인 차세대 유망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해외 각국의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들을 모국에 초청하는 연례행사로 1998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개막 이틀째인 9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참가자들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이 총리는 “여러분의 선조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면서도 조국에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는 나라에서 당당하게 한몫을 하시면서 조국 대한민국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도 과거처럼 가난의 상징,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동포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전날 서울 JW메리어트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대한

민국의 오늘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로운 역사를 세우신 선배들의 후예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모국 방문 기간에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시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과 리더십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차세대대회를 여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축사에서 “한반도는 남·북관계, 미·중 패권전쟁, 일본의 무역도발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열 연세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국제질서 변화 속의 한국외교와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이라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정부 간 외교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고 복구함으로써, 미·중 사이 줄서기를 피하고 한·일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4박 5일 동안 토크 콘서트, FLC세계시민포럼 등 현안을 토론하고, 한국의 근·현대 역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한국어와 한글에 자긍심을 가지자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한글학회 회장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민족과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우리의 생각을 이어주고 문화를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우리말이다. 우리가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어를 제1언어인 공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국과 북한의 주민이 여기에 속한다. 대략 7천500만 명으로, 사용자 수로 보면 세계 13위이다. 둘째는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살면서 저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등 그 국가의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재외동포와 그 후손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 사용하는 경우이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에 2천여 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를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또 외국어로 배워 쓰는 세계인이 많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우리 민족 모두 한국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잘 알다시피, 한글은 세종대왕이 세종 25년(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하여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한 글자이다. 훈민정음은 창제한 사람, 창제한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창제한 원리를 적은 기록이 전해 오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글자이다. 그 기록인 “훈민정음해례”는 한국의 국보이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글자이다.

언어와 글자는 그 민족 문화의 표상이며, 그 민족의 핵심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로서 우리말과 우리글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한국어를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게 하여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



## 2019년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업 상시모집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과, 해외 한상기업에게는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 제공을 위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 및 한상기업의 인턴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시행하던 정기(연3회) 모집 외에 상시모집을 아래와 같이 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 차세대 한상 육성 및 한민족 경제영토 확장

### 2. 모집개요

- 주관: 재외동포재단
- 모집인원: 100명(모집 인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인턴기간: 6개월
- 직무내용: 디자인, 무역, 행정, 기술직 등 한상기업별 요청 직무  
(※상기 분야 외 신청 가능)

### 3. 인턴채용 기업 선정 기준

- 현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100만 불 이상 기업
- 상시 종업원 5명 이상 기업
- 인턴의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기업
- 인턴의 업무로 사무직 제공 가능 기업(서빙 · 참고관리 · 라벨작업 등 단순 노무 불가)

- 매월 최소 US\$5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숙소, 교통, 식사 등) 제공 가능 기업
- 현금+현물(숙소, 교통비 등)로 합산 지원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필수)
-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선 선발

### 4. 재외동포재단 지원 내용

- 한상 기업
  - 지원대상: 최소 3명 이상 면접 및 1명 이상 채용 기업
  - 지원내역: 왕복항공료, 숙박(1박, 2인 1실), 면접장소(서울)  
(※근무 국가→한국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지원))
- 청년 인턴
  - 인턴사원에게 재단 지원금(최대 600만원) 지급  
(※1~5개월 매월 80만원, 6개월차 200만원 지급)
  - 보험료 지원, 사전 교육비 지원
  - 취업 확정시 취업비자 취득, 갱신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원(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 산업인력공단의 취업장려금 안내(자격 해당자)  
(※세부 접수 방법 및 일정 등은 한상넷(www.hansang.net) 참고)

### 5. 문의: 한상사업부

(gottogether@okf.or.kr / +82-64-786-0287)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백봉자(하우)

저자의 외국인 학습자 대상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국어 문법에 대해 정리한 도서이다. 언어생활 및 모국어 문법 체계가 달라 한국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를 교육하는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문법 교육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 가깝고도 먼 우리 함께 살기 신경희(서울연구원)

중국 여성 동포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수집했던 인터뷰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다. 중국 여성 동포들의 삶과 일상에 대하여 그들 목소리로 과거 중국에서의 생활,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생활, 미래 삶의 기대라는 세 축으로 책을 구성했다. 책의 제목처럼 중국 동포들이 우리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다.



### 사할린 잔류자들 현무암, 파이차제 스베틀라나(책과함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이념 대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잔류하게 된 사할린의 남겨진 사람들이 스스로 비운의 존재를 극복하는 감동적 인간상을 보여준다. 타지에서 삶을 개척하며 정체성을 정립해나갔던 좌절하지 않는 창의적 면모를 보여준다. 역사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보자.



### 가나에 아줌마 후카자와 우시오(아르티잔)

재일동포 작가 후카자와 우시오가 펴낸 국내 첫 단편집이다. 가족 간의 미묘한 관계, 사회와의 괴리감 등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작가의 세심한 문체로 풀어냈다. 재일동포로 거주국에서 겪는 소외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을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New 100 years with Han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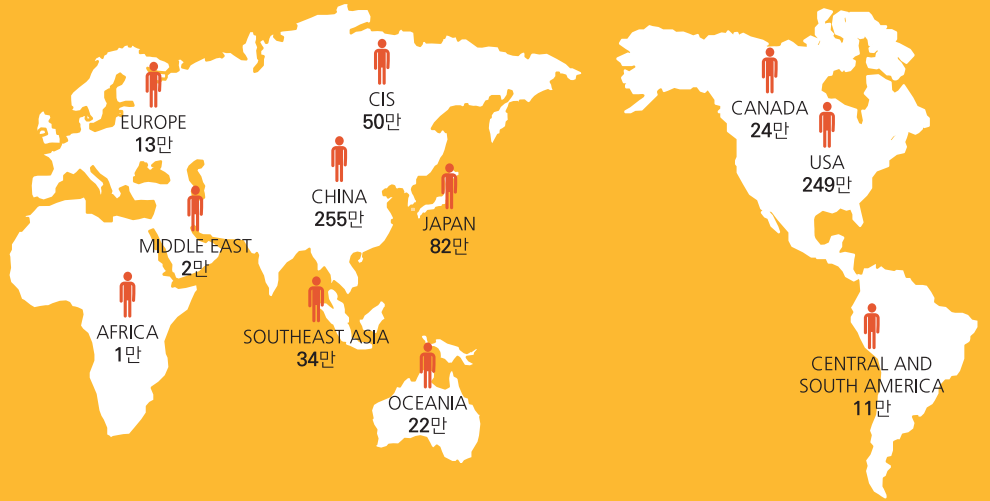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

THE 1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9.10. **22**(화) \_ **24**(목) 여수세계박람회장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